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모두발언

2021. 1. 6.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 규 상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입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지난해에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위기의 극복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정부는 대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였고,
소 금융권도 적극적으로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임대료 감면 등으로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희망해 봅니다.

2021년, 금년 한해는 코로나19 극복과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미래전략도 이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융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게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면서,
지속가능한 건전성과 수익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비대면, 플랫폼, 빅데이터 등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와 제도」 개선에 대해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정부가 금융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관행에 젖어있는 것은 아닌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없는지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❶ 예를 들면, 오랜기간 굳어진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회사의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예) 경영변동사항 신고 등 경미한 사안 공시 누락에 대해 건건이 과태료 부과

❷ 또한,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 역시

*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

판단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는 신축년(辛丑年), 소의 해 입니다.

흔히 소는 ‘우직함’의 상징으로 비유되고,
‘지혜로움’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물로 비춰집니다만,

‘우생마사(牛生馬死)’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말이 소보다 헤엄을 훨씬 더 잘 치지만
급물살을 만나면, 말은 자신을 과신하여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려다 지쳐서 죽고
소는 흐름대로 조금씩 전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와 4차 산업혁명의 격변기에서도
그 흐름을 잘 읽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신축년 새해 우리 금융시장이
더욱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규제·제도 혁신과 함께
관행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주신 좋은 의견은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올 해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